

고용유지지원금 ‘끝’... 기안기금에 손 내미는 항공업계

LCC 대부분 이달까지 정부 지원
에어서울 제외 모두 무급휴직 신청
제주항공 등 기안기금 신청 예정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 조건에 적합한 항공사들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항공사는 이달 말부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는 내달 11일까지인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전부 이달 말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대형항공사)는 각각 12월 15일, 11월 초까지다.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직원의 급여를 감당하기 힘든 저비용항공사들은 현재까지 에어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이같은 경영난에 항공사들은 고용유



제주항공 항공기.

지지원금의 지원 종료와 함께, 그동안 손대지 않던 기간산업안정기금까지 앞다투어 신청하고 있다. 기안기금은 지난 5월 28일 약 40조원 규모로 공식 출범해, 7월 7일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안기금을 신청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뿐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인수 합병)가 무

산된 아시아나항공은 기안기금으로 2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채권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1000억원을 남기고 소진됨에 따라 기안기금을 곧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현재 구조조정 운

영자금 2조4000억원과 영구채 인수 8000억원 등 3조 2000억원이 집행돼 1000억원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제주항공도 기안기금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제주항공은 15일 열릴 예정인 KDB산업은행 산하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기안기금 2조 지원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도 조만간 기안기금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단 이번 주에 신청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안기금은 기업이 신청한 후 금융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나 방식, 규모 등을 결정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청할 계획은 맞고, 규모나 시기 등은 협의 중이다. 신청을 언제 할지는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 적합한 나머지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아

직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안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8일 89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의 최종 납입일은 12월 15일이며,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유상증자 이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들은 기안기금을 통해 일단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안기금의 ‘고금리’는 여전히 논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안기금의 대출 금리가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되며, 연이자만 16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혁신 스타트업 독자기술 소개... ‘LG 커넥트’ 삼성전자 크리에이터 겨냥 고성능 SD카드

LG, 7개월간 50개 스타트업 선정
PC·모바일로 가상 전시관 관람
최신 기술 트렌드 관련 세미나 진행

LG가 스타트업 발굴에도 온택트 방식을 도입하며 ‘포스트 코로나’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LG는 14일부터 15일까지 스타트업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을 모색하는 ‘LG 커넥트’를 개최한다.

LG 커넥트는 혁신 스타트업을 모아 독자 기술을 소개하고 제품을 시연하는 자리다. 스타트업 테크페어에서 3번째인 이번부터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에는 지난 7개월간 공모를 통해 50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온라인 가상 전시관 형태로 헬스케어,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관련 AI 솔루션,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술, 로봇 분야가 출품됐다.



‘LG 커넥트’에 참가한 ‘에이치로보틱스’ 직원이 재활 보조용 로봇 수트를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가상 전시관은 PC나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다. 일반인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즐길 수 있다. ‘LG 커넥트’ 참여자들은 참가 기업들의 소개 영상 등을 보며 궁금한 점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세미나도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빌리티 시장’, ‘AI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선진국 AI 현황’ 등 스타트업 생태계 및 최신 기술 트렌드 관련 다양한 주제가 마련됐다.

총 6000만원 개발 지원금도 나온다. 벤처캐피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들의 온라인 투표를 합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3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와디즈와 협력해 클라우드 펀딩 유치도 지원한다.

LG도 협업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 개발(R&D) ▲사업화 지원 ▲LG사이언스파크 내 개방형 연구 공간 ‘오픈랩’ 입주 ▲글로벌 홍보 등을 돕는다. 이미 지난 행사에서 10여개 업체와 기술 라이선스 체결, 공동 연구, 사업 제품화를 진행하는 등 결실을 맺었다.

/김재용 기자 juk@

방수·폭넓은 온도서 정상 작동

삼성전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겨냥해 고성능 SD카드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14일 SD카드 ‘프로 플러스’와 ‘이보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D카드는 DSLR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 등 고성능 촬영 기기에서 쓰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마이크로 SD카드를 중심으로 제품을 공개해왔지만, 1인 미디어와 고 해상도 영상 보급이 빨라지면서 늘어난 고성능 SD카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결정했다.

프로 플러스는 최대 100MB/s, 90MB/s의 연속 읽기 및 쓰기 속도를 구현한다. 연사 촬영과 4K영상에 적합하다. 이보 플러스도 최대 1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로 원활한 영상 시청과



삼성전자 신형 SD카드.

/삼성전자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용량은 32GB부터 256GB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4K UHD와 FHD 영상 촬영도 지원한다. 특히 방수와 폭넓은 온도에서도 정상 작동하게 했으며, 자기장과 X-레이 등 7가지 외부 충격에 대한 특수 보호 기능도 적용해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0년의 제한적 보증도 적용된다.

가격은 128GB 기준 프로 플러스 24.99달러, 이보 플러스 19.99달러다. 256GB 모델은 각각 44.99달러, 39.99달러에 책정됐다.

/김재용 기자

LG 시그니처, 세계 명차 ‘벤틀리’와 공동 마케팅

행사기간 구매 신청시 추가혜택

LG전자 시그니처가 럭셔리카 벤틀리를 만난다. LG전자는 14일부터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호텔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소개하는 프라이빗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세션당 2~3명만 참석하게 했다. 이미 전 일정 예약이 조기 마감된 상태다. 모든 참가자에 특별 기념품을 선물하며, 행사 기간 구매를 신청하면 다양한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LG전자는 행사장에 올레드 R뿐 아니라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도 함께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R과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함께 전시되었다.

/LG전자

전시한다. 벤틀리는 영국에 본사를 둔 럭셔리카 브랜드로, 올레드R과 함께 고객에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R와

벤틀리 차량의 주 수요층이 브랜드의 최고 가치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양 브랜드가 함께 하는 행사가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용량 키우고 크기는 그대로 ‘트롬워시타워’

LG전자, 트루스팀 기능 유지

트롬 워시타워가 더 커졌다.

LG전자는 15일 트롬 워시타워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워시타워는 용량을 한 단계 키운 것이 특징이다. 세탁기 24kg, 건조기 17kg으로, 종전보다 각각 3kg, 1kg 더 용량을 늘렸다.

트루스팀 기능은 그대로 이어간다. 다이렉트 드라이브(DD) 세탁기는 의류 무게를 감지해 세탁 코스를 스스로 선택해주기도 한다. ‘원바디 린드리 컨트롤’로 가까운 거리에서 조작할 수도 있다.

크기도 그대로다. 동급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설치할 때보다 약 87mm 낮



트롬 워시타워 신제품.

/LG전자

게 설계됐다. 건조기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공간 활용도 유리하다. 심리스 디자인에 글라스도어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구현해냈다.

가격은 449만원이다. 이전 모델(419만원)보다 30만원 비싸졌다. 색상은 일단 메탈 소재 스타라이트 실버로 나온다.

/김재용 기자